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2 새로움 1번	작성자	Aletheia 님
------	-------------------	-----	------------

[문항 1]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가는 다수가 새로움의 부상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았지만, 제시문 나, 다는 다수가 새로움의 부상에 있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먼저 가는 뛰어난 소수가 시도한 새로운 종교의 창설이 좌절되거나 수용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탁월한 창시자가 제안한 종교조차 그리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이는 그리스 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와 개인의 다양성이 새로운 사상의 수용을 방해한 것이다.** 루터의 사례는 수준 낮은 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경우와 달리 루터의 종교 개혁은 문화적으로 발전이 더딘 북유럽에서 성공했다. 이는 대중이 새로운 사상의 출현에 도움을 주었다기 보다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상이 보편화, 절대화 된다는 것은 그 사상을 수용하는 대중의 하등함을 방증한다. **2. 새로움은 오직 개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고, 다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새로움을 거부한다.**

3. 반면, 제시문 나와 다는 다수가 새로움을 모방하고 전승함으로써 새로움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나에서 결작 아닌 것은 모방을 통해 결작을 전승하고, 다의 집단을 통해 진보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서 새로움은 그저 재확인 대상이지만 다의 새로움은 창조되고 만들어진다. 나의 아류는 결작을 모독하고 고친다. 아류에 대한 비난은 동시에 결작에 대한 존경과 숭앙을 드러내고 결작으로 다시금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결작 아닌 것은 결작으로 인도할 뿐이지 그것을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에서는 다수의 집단적인 성찰 과정을 통해 새로움이 등장한다. 무수한 집단 지성 내에서 일어나는 모방과 여대를 통해 그 결과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창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새로움의 절대성에 대한 두 입장과의 관련이 있다. 나의 결작은 숭앙받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대체되거나 창조되지 않고, 다의 발견과 새로운 창조물은 절대적이지 않고 대체되고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첨삭 포인트]

1. 하고 싶은 말은 이해가 되는데, 표현이 어색합니다. 다양성이 새로운 사상의 수용을 ‘방해’ 했다고 보단, 다양성을 함유한 사회에서 새로운 사상의 출현은 어렵다 정도면 좋겠네요.
2. 그리고 새로움을 무조건 적으로 거부한다는 표현 보다는, ‘새로움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정도로 수정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또한, 발문에서는 새로움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2문단에서 다수의 역할은 전혀 서술되지 않아 감점입니다.
3. 그리고 (다)에서 다수는 새로움을 모방하고 전승하지 않고, 새로움을 만드는 주체로서 활동합니다. 제시문 오독으로 큰 감점입니다, (다)에서의 모방은 새로움의 창조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사고가 서로 연대하며 모방하는 것이지 기존의 새로움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감점입니다.
4. 이에 따라 3번 이후 문단에서는 잘못된 주장에 따라 글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C+

총평	제시문의 오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글의 구조와 근거 서술적 차원보다 제시문 독해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